

2. 大企業 政策의 硬化

- 政府 : 大企業의 經濟力 集中에 의한 國民經濟의 效率性 低下 우려
- 財界 : 불합리한 大企業 政策 強化는 國際競爭力의 弱화만 招來

1) 30大 그룹 所有 分散

- 정부는 8월 8일 현행 純資産의 40%인 30대그룹 系列社의 出資總額限度를 25%로 인하는 내용의 公正去來法 改正案을 立法豫告하고 9월중으로 定期國會에 제출할 예정임

-政府立場

- 30대 企業集團의 國民經濟 比重은 광공업출하액의 35.7%에 이르고 있음. 또 내부지분율이 42.7%에 이르는 등 소유가 집중되고 평균영위업종수가 19.1개에 달하는 등 기업집중이 심화되고 있음.
- 이러한 經濟力集中現狀은 부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의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보고, 國家競爭力施策을 뒷받침하면서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억제키로 함.
- 出資總額限度는 현행 純資産의 40%에서 25%로 인하하고 기업에 미치는 일시적 충격을 덜기위해 3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었음.

-財界立場

- 상위 10대 企業集團의 '92년도 賣出額中 90% 정도는 '82년이전에 설립된 기업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. '87-'92년 동안 상위 5대 企業集團 主力企業의 경우 出資比率이 낮아지고 自己資本比率도 개선되었음.
- 出資總額限度가 낮다고 좋은 것은 아님. 出資總額限度를 축소하면 新規事業投資制約에 의해 競爭力이 약화됨. 대주주의 소유분산은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出資總額限度를 정할 때는 經營權 安定에 필요한 內部出資는 인정돼야 함.
- 出資總額限度比率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현행 40%에서 35% 수준으로 인하하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함.

2) 30大 그룹의 系列社間 債務保證 限度 縮小

-內容

- '94년 4월 1일 현재 自己資本의 2백% 이내로 제한된 系列社間 債務保證 限度額을 초과한 30대그룹 1백6개 系列社는 24조2천억 원에 이르는 系列社間 債務保證限度 超過額을 '96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함.

-評價

- 그룹별로 限度超過金額은 대우그룹이 2조 5,15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삼미그룹이 2조 3,140억 원, 삼성그룹이 1조 5,699억 원, 고합그룹이 1조 4,921억 원, 한화그룹이 1조 3,255억 원 이며 현대그룹은 9,176억 원임.
- 系列社間 債務保證額이 自己資本의 2백% 이내인 그룹은 지난해 선경, 롯데, 기아, 쌍용등 4개에서 올해는 현대, 대우, 삼성, 럭금, 선경, 쌍용, 기아, 롯데, 동아건설, 효성, 동국제강, 동양, 코오롱 등 13개로 늘어 대기업집단이 채무보증 초과분 해소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였음.

3) 銀行 所有構造 改善 (案)

-金融專業 對象 銀行

- 金融專業資本家가 경영권을 주도할 수 있는 대상은행을 조흥, 상업, 제일, 한일, 서울신탁, 외환, 신한 등 7개 은행에 한정기로 최종 확정했음.

-改正案 內容

- 이들 은행을 지배하려는 最大株主는 銀行法上 1인 최대 지분율을 현행 8%에서 12%로 높이고 나머지 주주는 오는 '97년 6월 이내(유예기간 3년)에 4%를 넘는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함.
- 또 金融專業企業家가 사실상 지배하는 비금융업종은 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한 주식투자의 경우 일정율까지는 허용되며 자신이 진출한 이외의 타은행지분은 1% 이상 가질 수 없게 됨.
- 이번 은행법 개정과 관련, 전업자본가로 진출하려는 개인은 최대지분한도인 12% 중 3분의 2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약 2천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며 공정거래법상 30대기업집단 계열주와 위성계열주까지 모두 배제됨.

(천 일 영)